



한줌 흙에서 얻은 법문

《암자로 가는 길》 펴낸 정찬주씨

반찬통에 든 깍두기는 1인분이었다. 암자에 돌아온 스님이 밥을 짓고 반찬통을 열었을 때의 실망을 헤아린 것이다.

소개한 52개의 암자 가운데 지칠 때마다 찾는 곳도 있다. 인생길이 흐트러질 때면 자신에게 법명을 주신 법정스님이 짓고 기거하셨던 불일암을 찾고, 마음 속에 욕심이 무성해질 때마다 오대산 염불암을 찾는다. 그 산의 나무만으로 지은 너와집과 한강의 발원지가 된 작은 샘 우통수가 무소유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5월에 오르면 산의 높이에 따라 4계의 아름다움을 한꺼번에 맞볼 수 있는 설악산 봉정암도 좋아하는 암자다.

“학교(동국대) 다니는 동안 불교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소설 습작을 절에서 해, 불교가 자연스럽게 훈습된 듯합니다.”

《소설 유마경》《내 마음의 바리때》 등 불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저서가 많은 것을 정찬주씨는 불가에 진 빚감음으로 설명한다. 요즘은 3천배하기가 겁나 뵈지 못한 성철스님의 일대기를 소설화하고 있는데, 원고지 한 장마다 절하는 정성으로 3천배를 쓰려 한다.

— 이현주 기자



《암자로 가는 길》(좋은날)을 펴낸 정찬주씨(44, 《샘터》 편집부장)에게 암자는 고향 중의 고향, 어머니품 같은 곳이다. 일간지의 청탁으로 1년간 주말마다 암자를 찾았는데, 그곳에서 마음의 위안과 흐트러진 정신을 반듯하게 하는 힘을 얻었다.

“사찰들이 관광지가 되고 있지만, 암자는 구도정신의 본향으로 청정을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같은 생각 때문에 먹거리·불거리의 소개를 아우르는 글을 원했던 신문사와 의견충돌도 있었다. 몇 회가 지나자 그의 관점은 받아들여졌고, 가이드 대신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됐다. 7~8매의 짧은 글에 여정에서 얻은 감상과 풍부한 상징을 담으려니, 글은 간결해지고 울림은 커졌다.

하지만 기암절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도 하고, 새나 쉬어갈 법한 해발 1000미터의 암자를 찾는 길은 고됐다. 짧은 일정에 쫓겨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고 한밤중에 올라가야 했던 두타산의 관음암, 지척에 두고 하루종일 헤맸던 무등산 규봉암 등 사연도 많다. 노을과 바위, 까마귀와 한줌의 흙에서도 법문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불교를 모른다면 사진기자도 팔공산의 운부암을 찍고서 비로소 암자가 무엇인지 알았다.

“지리산 상무주에서 10년 넘게 이름 없이 수행하시던 스님은 영원히 사는 길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씨는 그 말을 남은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 그래서 운달산 금선대에 올랐을 때, 곧 쓰러질 것 같은 허기에도 남은 반찬을 스님께 양보했다. 차가운 물에 담긴



우리나라 종교의 성지를 찾아서

《한국의 성지》 펴낸 이선민씨

새로 써나가는 과정에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완성된 원고를 고치는 작업이었으면 더디게 진행되었을 거라고 덧붙인다. 이렇게 4개월 작업 끝에 원고는 완성되었다. 처음에는 한권으로 묶을 작정이었으나, 종교별로 따로 묶지는 출판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네권으로 펴내기에 이른다. 천주교편과 개신교편은 이 달 10일 안으로 출간될 예정.

이선민씨는 88년 조선일보에 들어가 사회부와 편집부 등을 거쳐 5년전부터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 “종교간의 균형이 종교담당 기자의 첫번째 원칙”이라고 말하는 그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허나 민족종교의 발흥이나 기성종교의 현안에 대해서는 종교학자 못지않은 안목을 지니고 있다.

“모든 종교는 한때 신흥종교였습니다. 신흥종교가 기성종교가 되려면 교단의 공개를 통한 사회화가 필수적입니다. 신흥교단들이 교육 및 의료기관을 세우거나 교단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최성일 기자

종교성지 하면 으레 부다가야, 예루살렘, 메카 같은 해외의 종교발생지를 떠올리는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책이 나왔다. 이선민 기자(37, 조선일보 문화부)의 《한국의 성지》(샘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 성지를 직접 둘러보며 쓴 성지순례기로 전체 네권 가운데 민족종교편과 불교편이 먼저 출간되었다.

이선민씨가 우리나라 종교의 성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4년 종교담당기자를 맡게 되면서부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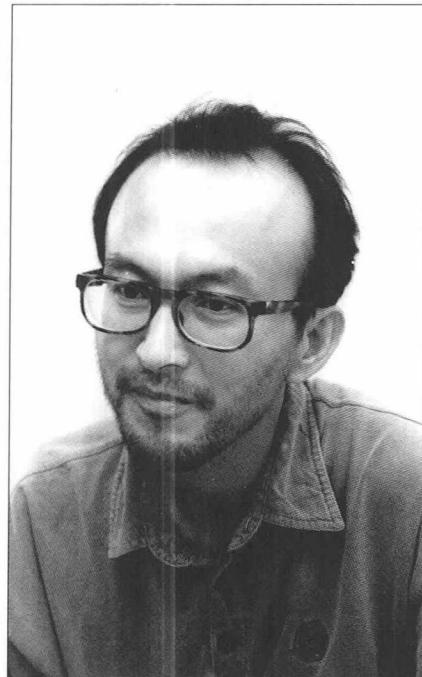
“취재 관계로 각 종교의 성지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성지의 유래를 듣고, 정성스럽게 가꾸진 성지를 보면서 기회가 오면 집중적으로 소개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이 책은 지난해 《조선일보》종교면에 연재한 같은 제목의 기획물이 바탕이 되었다. 주간 연재물로 40회 연재했는데 이른바 3대 종교로 통하는 불교·천주교·개신교의 성지를 각 10곳씩 다뤘고, 나머지는 유교·천도교·원불교·증산계통의 종교 같은 민족종교에 할애했다.

신문 연재가 도화선이 되기는 했으나 이 책은 전작출판물에 속한다. 원고지 7장에 불과한 제한된 분량으로는 성지의 면모를 제대로 담을 수 없었다. 원고를 25장 정도로 새로 썼고, 관련되는 사진을 여러 장 수록했다. 특히 대순진리회 박한경 도전의 사진은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이씨는 개인적으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된 점을 소중한 경험으로 꼽는다. 올해 초 불교편의 두 쪽지 ‘통도사 금강계단’과 ‘해인사 경관전’을 써서 출판사와 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겨자씨 안에 들어 있는 세상

《황금털 사자》 펴낸 최승호씨

지난 3월 출간한 시집 《여백》에서 우화 형식을 선보였던 시인 최승호(43)씨는 3개월여 밤샘을 통해 한달음에 우화집 《황금털 사자》(해냄)를 펴냈다.

“본디 시와 우화는 긴밀합니다. 우화시, 우화소설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화 형식에 꽤 매력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로테스크하고 암울한 분위기가 주조였던 그의 시세계에 비해 우화집 《황금털 사자》에는 풍자와 해학, 관조가 있다. 그로테스크와 유머러스가 어우러진 것이 이 책의 특징. 친근한 동물들을 통해 ‘전도된 세계’를 그렸다. 정치사회적인 풍자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반기를 들고 과연 어떤 것이 바른 가치관인지 되묻는 것이 많다. 그의 우화에서는 정돈된 일상과 틀에 박힌 습관이야말로 괴기스러운 때가 있다.

“우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큰 틀을 만들어 줍니다. 자잘한 삶의 세묵에 끌려가기보다는 인생이나 형이상학과 같은 거대한 인식의 틀을 거시적 안목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간다’는 말처럼 짧은 몸체 안에 인생을 응축하고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우화지요.”

모두 97가지의 짤막한 이야기로 꾸며진 《황금털 사자》는 교훈적이거나 단정적이지 않다. 최승호씨는 ‘현대의 우화’에 대해 고민한다. “우화의 옛기능은 풍자와 교훈이지만, 이 시대에 교훈의 기능은 오히려 불필요한 강박입니다. 문학은 의미의 대상이고 열려진 해석의 대상인데, 가르치려 든다는 것은 또하나의 폭력이지요.”

그는 자신의 작품이 여러가지 빛깔로 읽히는 분광 효과를 원한다. 되도록 독자의

몫을 남기기 위해 여운이 많은 우화를 담았다. 고정관념을 엮어버리는 주제를 찾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글쓰기는 즐거웠다.

“시를 쓸 때와는 다른 의식으로 썼습니다. 제 시세계가 견고함을 추구하고 정확한 문법을 고집했다면, 우화는 석도(石濤) 화상처럼 한 획에 써내려간 글들입니다. 동양화 그리듯이, 물 흐르듯이 부드러움을 추구한 글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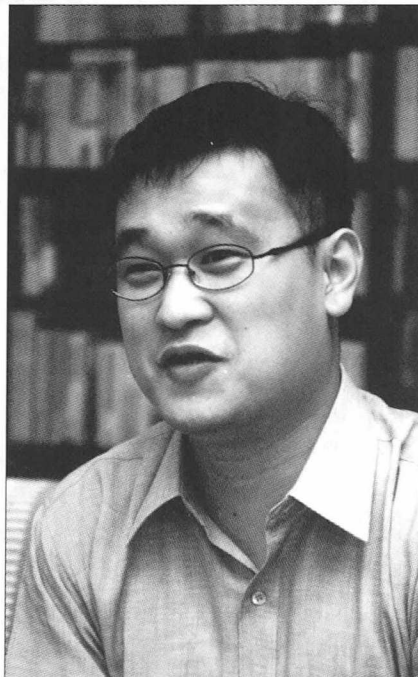
그의 우화집에는 시로는 담지 못했던 것들이 담겨 있다. 성긴 그물에 걸리는 고기가 따로 있는 법이다.

이 책에는 물고기가 많이 등장한다. 비단잉어, 오징어, 이상한 물고기, 게, 망둥이 등이 빈번한 등장인물이다. 춘천이 고향인 그의 작품에 물과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다.

“체계는 늘 ‘물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물비린내가 나의 몸을 휘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의 이미지’는 인간 모두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누에가 비단실을 게우듯, 올해 들어 시집과 우화집을 연이어 뽑아낸 그는, 자신의 말을 빌리면 ‘침샘 별’처럼 지쳐 있다. 당분간 쉬며 ‘여백’처럼 지낼 예정이다.

— 마정미 기자



팔만사천 법문의 참 뜻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펴낸 진현종씨

것이다.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전들을 뽑아 해설한 것이 이 책의 핵심. 팔만대장경이 담고 있는 불교사상의 요체를 보여준다.

“경전을 선별하는 작업이 힘들었습니다. 대승불교의 전통적인 강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받고 있는 소승경전도 균등하게 다루고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진현종씨는 이 책의 후반부에,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경전에 대한 간단한 해제와 요약도 빼놓지 않았다. ‘한권’으로 대장경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덕분에 이 책은 700여페이지에 달하는 묵직하고 두툼한 책이 됐다.

이 책이 팔만대장경의 진면모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보다 알찬 작업을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진현종씨는 이 책을 집필하는 동안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경하고 30분간 참선수행을 한 후에 컴퓨터 앞에 앉았다. 작업을 마친 후 그는 장애인, 특히 ‘다운증후군’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다는 뜬금없는 ‘서원(誓願)’을 갖게 됐다.

— 박남정 기자

“팔만대장경은 언제 나와요?”

1년전쯤 일이다. 진현종(31, 프리랜서 출판기획가)씨는 ‘한권으로 읽는’ 시리즈로 한창 독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출판사의 기획담당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이미 기획이 완료되고 집필자도 선정되었겠거니 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 써가 되어 진현종씨는 이후 1년간 꼼짝없이 팔만대장경에 매달려야 했다. 고등학교 때 팔만대장경을 처음으로 보고 독파의 원(願)을 세운 후, 줄곧 팔만대장경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읽고 정리해온 진현종씨야말로 이 기획의 적임자였기 때문이다.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들녘)은 이렇게 출간됐다.

“팔만대장경을 한권으로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루에 한권씩 읽는다고 해도 모든 경을 다 읽으려면 십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각 경을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해도 막대한 지면이 소요됩니다. 이 책은 팔만대장경을 모두 정리한 것이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한권으로 정리하고 제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진씨는 북한판 《팔만대장경 해제》와 동국대 역경원에서 나온 《한글대장경》, 영인본 《고려대장경》을 서로 비교, 참조해가며 팔만대장경의 진면모를 확인해나갔다. 팔만대장경의 전모를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담아내기 위해 진씨는 우선 팔만대장경의 조성경위와 8세기를 이어온 보존의 역사를 밝힌다.

소승경전을 토대로 부처님의 일생도 재구성해 놓았는데, 이는 특별히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독자들을 염두에 둔

